

플라즈마 응용기술 개발 본격 추진

핵융합연구소, 산·학·연 협력 강화 ... 에너지·환경·전자·의료에 적용

국내 연구진이 플라즈마의 융·복합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기치로 내걸고 플라즈마 융·복합기술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핵융합연구소는 7월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경수 소장과 교육과학기술부 문해주 거대과학정책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즈마 융·복합기술개발 추진 전략과 사업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경수 소장은 인사말에서 “융·복합 플라즈마 기술은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돼 기존 기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명품기술로 산·학·연 협력과 체계적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의 고부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플라즈마 융·복합 기술 개발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와 구분되는 물질의 제 4상태로 이온화된 기체 상태를 말하며, 플라즈마 응용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 의료, 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반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핵융합연구소는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개발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등으로 다져온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사업을 추진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2>